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2차**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3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 문제

[라], [마]에 제시된 윤리적 관점을 [가], [나], [다]에 적용하여 세계화 논쟁의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논술하고, 세계화 현상에 적용된 [라], [마]의 관점은 상호배타적인지 또는 보완적인지 논하시오.

## 제시문

[가] 세계화란 일반적으로 국가 간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상호 의존이 심화된 결과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자유 무역과 국가 간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어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출 및 수입 등 경제적 교류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구촌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개인, 기업,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나]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적 분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무역 장벽의 완화로 국제 거래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국제 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제품 판매 시장을 세계로 넓히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화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로 자본이 더 가난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이 확산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 이처럼 자본, 상품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면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다] 세계화는 경제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세계화는 자유 무역 옹호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금융 이해관계자, 다국적 기업 등이 추진한 경제 정책의 결과이다. 경제적 세계화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다. 세계 전체에서 20% 상위 부국들이 전 세계 자원의 85%를 사용하고, 나머지 80%의 하위 국가들이 단지 15%만의 자원을 사용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훨씬 더 부유해졌고,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은 가속화되었다. 한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상위 10%의 부자들이 세계화가 창출해 낸 수익 대부분을 독점했으며, 하위 10%의 가난한 사람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를 경험하였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라] 각자의 몫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즉 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 왔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정의관에서는 각자의 몫을 결과의 정의로움에서 찾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해 온 벤담의 공리주의적 정의관이다. 공리주의는 행위가 여러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사회적 의미에서 그중 일부는 좋은 것이 되고 다른 일부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사회적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마] 오늘날 사회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롤스는 불공평한 배분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첫 번째 원칙은 타인의 자유가 침해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일단 기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면 수입과 부의 분배, 기회 여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재화에서 불평등이 오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1. 출제의도

- 본 문항은 모든 지문을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사용함으로써, 교과과정 이외의 사전 지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시문의 내용에만 근거해도 충분히 답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문항은 교육과정 [10통사08-01]에서 학습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적용하여 세계화라는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들을 읽으며 제시문 사이의 논리를 연결하고 유추함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교육과정 [10통사05-02], [12세지01-01], [12세지08-01], [12운사04-03] 등의 성취기준과도 연관된다.
- 구체적으로 세계화 현상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통합사회 교과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윤리와 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다룬 윤리와 사상 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세계화 현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문항해설

본 문항은 교과과정 이외의 사전 지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교과서에서 발췌된 제시문의 내용에만 근거해 답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문항의 목적은 [가]~[다]에 제시된 세계화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등 통합적 시각으로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를 논하는 데 있다.

[가]는 세계화의 의미와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분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다]는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경쟁력이 강한 부문과 약한 부문 간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라]는 벤담이 제안한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다.

[마]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롤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 [채점기준]

- [나]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라는 세계화의 편익에 대한 논리와, [다]의 국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라는 세계화의 비용에 대한 논리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 [라]의 벤담의 공리주의는 전체적인 편익의 증가를 추구하는 반면 [마]의 롤스의 정의관은 개체의 관점에서 분배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 세계화의 편익을 주장하는 [나]의 지문을 [라]의 공리주의 관점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세계화의 비용을 주장하는 [다]의 지문을 [마]의 롤스의 정의관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전체적인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바라보는 [라]의 공리주의론과 개체들 간의 분배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마]의 롤스의 정의관이 상호보완적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 [유의사항]

특상의 변별을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라], [마]의 지문에 기반하여 세계화의 장점, 단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 구체적으로:

- 전체적 관점 vs. 개체적 관점, 세계화의 편익 vs. 세계화의 비용이라는 다층적 시각에서 세계화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계화의 편익을 논하는 [나]를 [라]의 공리주의론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가?
- 개체(국가, 기업, 개인 등)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비용을 논하는 [다]를 [마]의 분배의 정의관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가?

#### 4. 예시답안

[라]는 벤담의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다. [마]는 분배의 정의에 관한 롤스의 이론이다. [가]는 세계화의 의미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나], [다]는 각각 세계화 현상이 가져오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주장들이다.

[가]는 세계화란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과정이며 지구촌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 기업,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나]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분업이 진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사회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다]의 주장에 따르면 [나]의 주장은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는 집단의 일방적 논리로 실제로는 세계화의 결과로 국가 간, 계층 간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라]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세계화 현상을 살펴보면, 경제적 행위로서 세계화는 사회적 이익 뿐 아니라 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익과 비용을 주의 깊게 비교하여, 이익이 비용을 넘어선다면 세계화는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세계화를 통해 전체적인 이익이 증가된다는 명분 아래 개체(개별 국가, 기업, 개인 등)의 권리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마]의 롤스의 분배의 정의관에 따르면, 세계화로 야기되는 수입과 부의 큰 격차가 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은, 불평등한 분배를 양산하는 세계화의 시장 경제와 자유 무역 시스템이 사회에서 혜택에 소외된 계층에게도 이익을 줄 때이다. 이러한 분배의 정의 관점에서 [다]의 세계화 현상이 태생적으로 내포하는 불평등의 양산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의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사회 전체의 비용, 편익을 토대로 정의로움을 주장하는 반면 [마]의 롤스의 정의관은 전체적 비용, 편익이 아닌 개체 즉, 국가, 기업, 개인의 입장에서 수입과 부의 정당한 배분의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화 현상에 적용된 [라], [마]의 사상은 전체와 개체,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논쟁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상호보완적 논리이다.